



3면

"완주·전주 통합 추진 적극 노력"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음 7월 17일) 제357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주역 역사 증축 공사 이용객들의 불편 가중

### 전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전주이미지' 훼손 철도공단 측 "선상 연결 통로 올해안에 개설"

전주역 증축 공사로 인해 열차 이용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코레일 국가철도공단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역 증축공사는 지난해 5월 1일 착공해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 2개월 동안 진행된다.

문제는 건물을 짓기 시작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대형 가림막만 설치된 채 공사가 속도감 있게 진척되지 않는데다 편의시설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열차 승객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객들은 역 앞에 승용차는 물론 버스조차 진입하지 못하고 정차할 수조차 없어 무거운 짐을 가진 승객과 장애인, 노약자 승객들의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역사 신축 공사는 2026년 6월 말에 완공 예정이어서 승객들의 불편이 앞으로 약 2년 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 신축 관계로 임시주차장을 전주역 뒤편에 개설했으나 제대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 입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전주역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임시주차장 가는 길목에 안내표지판 설치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해 코레일 전북지역본부의 경우 홈페이지도 없고, 코레일 본부만 홈페이지가 있는 관계로 이용객들에게 홍보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난 19일 전주역을 방문한 한 시민은 "임시주차장에서 철도를 가로질러 임시 가설된 가교에 설치된 승강기가 고장이 나 있었다"며, "임시 개설된 가교에 부착된 전화로 승강기 보수요원에 전화해서 수리가 되었으나, 승강기 안에는 에어컨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짧은 시간임에도 무더위에 숨이 켜져 막히며, 땀을 흘리는 진풍경이 연출돼 승객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고도 했다.

천만 관광객이 찾는 첫 관문인 전주역이 이처럼 승객 무배려 행정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주시 대중교통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는 "승용차의 전면 통제와 관련해 입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승객에 대해서는 입구에 통제하는 직원이 사실을 확인해 진입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홍보 문안을 게시할 것

도 고려했으나 너무 많은 이용객이 발생하면 오히려 교통혼잡으로 승객들에게 불편을 줄 것으로 판단돼 홍보문안 게시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가철도공단 건설 관련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는 "역 뒤편에 있는 임시주차장과 사이에 이룬 시일 안에 선상 연결 통로를 개설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이용으로 승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에 착공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나, 언제 완공될지 알 수 없어 열차 이용 승객들의 불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레일 전북본부에 관련 사항에 대해 통화해 본 결과 해당 관계자는 "장애인 등 노약자 승객이 역을 이용할 경우 입구에서 들어오는 장애인 노약자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현재 역 앞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표지판 등은 만들 생각이 없다"는 설명에 장애인 배려를 위한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정이 아쉬운 대목으로 남게 됐다.

열차 이용 중 불편을 겪는 한 시민은 "전주역 증축 공사가 착공을 시작한 지 1년 3개월이 넘게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관계기관에서는 하루빨리 증축으로 인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해 장애인 고령자 등 노약자의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지난해 5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 2개월 동안 전주역 역사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벌써 건물을 짓기 시작한 지가 1년 3개월이 넘어가는데도 승객들의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전주역 역사 증축 공사현장의 모습이다.

## 코로나19 재유행... 전북자치도, 대응 총력

### 이달 2주차에 정점... 도, 관계부서 회의 열고 대응체계 논의 "손씻기·환기·기침예절·마스크 착용 등 준수해야" 강조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계부서 점검 회의를 19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 동향, 코로나19 치료제, 감염 예방 수칙, 예방접종 등 대응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코로나19 표본감시 환자 수는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8월 2주차에 정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감염병관리기관 4개소(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대지인병원)를 지정, 음압격리병상 70개소를 확보했으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 구축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발생 신고 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으며, 감염취약시설 내 환자 10명 이상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해 발생 정보 및 환자·접촉자를 보고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도내 조제기관이 239개소 지정돼 주 2회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최근 환자 증가로 긴급물량을 지자체를 통해 추가 배정하고 있다.

현재 치료제 사용 증가로 인해 치료제 공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질병청의 치료제 추가확보 계획에 따라 8월 마지막 주(25~31일)까지는 치료제 이용이 원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자치도는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핵심 사

항으로 손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추가했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 시설 등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2024~2025년 10월 예방접종은 10월 중 시작예정이며, 고위험군은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접종자 본인 비용 부담하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서 및 기관들과 협력해 의료대응체계, 치료제 공급 등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 및 휴가기간 사람 간 접촉 증가로 인해 호흡기 감염병 유행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실내 환기,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2024. 8/31(토) - 9/8(일)

주최: 무주군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주관: 무주반딧불축제재건위원회 후원: 한국관광공사 전북문화관광재단 문의: 063)324-2440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의 일상 복귀 지원

도 '청년미래센터' 개소  
복지부 시범 공모 선정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미래센터는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개인의 꿈과 미래를 희생해야 하는 가족 돌봄 청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외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고립 은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고, 아픈 가족에게는 돌봄, 요양, 의료, 생활 지원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고립 은둔 청년에게는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자기회복, 사회관계 개선, 특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그 가족에게도 소통교육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센터는 향후 2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 수탁 운영하며, 20명의 전문 인력이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을 비롯해 인천, 울산, 충북이 보건복지부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되며, 전북도는 2025년까지 총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센터를 방문한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이동정책관은 "청년 지원 전담 기관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청년미래센터가 전문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센터의 지원사업 참여 방법은 온라인(www.mohw2030.c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청년미래센터 ☎ (063-901-1339) 및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